

いつか必ず伝えたい

リュ ソンヒ

(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言語文化学部 3 年日語・日本文化専攻)

今回 3 年生として 1 年を過ごした中で一番記憶に残っていることをあげるとするならば信州大学の友達と一緒に過ごした一週間の時間だ。今まで日本人の学生たちと出会ったことは何度もあったが信州大学の学生と一緒に過ごした時間は私にとっては特別なことであった。なぜならば、専攻代表としてたりない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私は、今回の行事はもっともプレッシャーを感じるものだったからである。

友達を迎える前の日は全然寝れなかった。その時に感じたのはどきどきする気持より恐ろしい気持ではなかっただろうか。しかし実際に友達と話し合ったり、親しくなって日本語に対して自信を取り戻している自分に気づいた。つたない日本語だったが、信州の友達の暖かい思いやりに助けられながら、友達が一所懸命準備した授業などいろいろなことを教えられたと思う。信州大学の友達は日本に関する写真や切手など私たちに日本的なものを教えてくれるためいろいろと準備をしてきた。それを見ながら自分達が韓国的なことをもっとたくさん見せられなかったのはとても残念だと思った。

不便なことがたくさんあったと思う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笑いながら生活してくれた友達にとっても感謝している。そして、今回信州大学で勉強できる機会を持てるようにして下さった先生たちにも感謝の言葉を申しあげたい。一週間という時間は短い。しかし一週間の信州の友達との記憶は忘れられないと思う。これからも熱心に日本語の勉強をしてもっと韓国的なものを日本人の友達に教えられたらと思う。

韓国の暖かい春の陽射し、夏の夕立、秋の豊かさ、冬の真っ白な雪がいかに美しいかを・・・いつか必ず伝えたい。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류 성희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3학년)

이번 3학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신슈대학 친구들과 보낸 1주일간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일본 학생들과 같이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신슈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겐 특별했다. 왜냐하면, 전공대표로서 늘 모자란 실력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왔다. 친구들을 맞이하기 전날은 잠도 오지 않았다. 설레임이라기 보다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막상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친해지면서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었지만 신슈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업들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신슈 대학친구들은 일본에 관한 사진이나 우표 등 우리에게 보다 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다. 그것을 보면서, 보다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웃으면서 생활해 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신슈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경써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주라는 시간은 짧다.

그러나 1주간의 신슈 친구들과의 기억은 잊을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더 한국적인 것을 일본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한국의 따뜻한 봄날 햇살, 여름날의 소나기, 가을날의 풍성함, 겨울날의 하얀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꼭 가르쳐 주고 싶다.